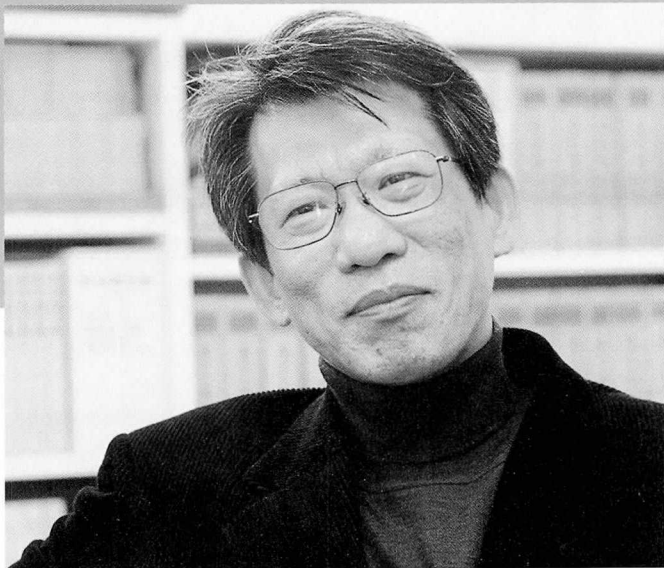


“완당은 국제적 시야로 봐야 진가 드러난다”

《완당 평전(1~2)》 펴낸 유홍준 교수



김정희는 우리나라 최고의 서예가, 화가이자 금석학·고증학의 대가였다. 그러나 “세상에는 추사를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아는 사람도 없다”. 유교수는 김정희를 둘러싼 수많은 인물들과의 관계를 서술하고 청나라 학자들과의 학문교류를 추적하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김정희의 삶과 예술, 학문적 업적을 되살려놓는다. 이 책은 10년 동안 자료를 찾고 4년 동안 집필에 매달린 유교수의 집념어린 결실이다.

대충 그런 듯한 소나무 네 그루와 동그란 문이 달린 집 한 채. 집은 삐뚤어지니 구도에도 어긋나 있고, 그림의 여백은 황량하기 그지없다. 거기에 단아한 글씨가 가지런히 정렬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한도(歲寒圖)>의 대략적인 모습이다. <세한도>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세한도>를 그린 사람이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또한 드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다. 그 그림이 왜 우리나라 문인화의 최고봉으로 손꼽히는지 알지 못한다.

그 그림이 추사가 제주도 유배시절, 청나라에 가서 책을 구해다주던 제자 역관 이상적에게 주기 위해, “날이 차가워진 뒤에야 소나무가 뒤늦게 시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공자의 말을 빌려 “그대와 나의 관계는 전이라고 더한 것도 후라고 줄어든 것도 아니다”며 고마움을 표시한 발문을 적고 그림을 그린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완당 평전(1~2)》(학고재)에서 유홍준 교수(53, 명지대 미술사학과)는, <세한도>는 김정희의 마음 속 이미지를 그린 것으로 그림에 서려 있는 격조와 문기(文氣)가 생명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림과 글씨 모두에서 문자향을 강조했다던 완당의 예술세계가 이 소략한 그림과 정제된 글씨 속에 흥건히 배어 있음이 이 그림의 본질”이라고 평가한다.

“세상에는 추사를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아는 사람도 없다”

<세한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적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추사를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아는 사람도 없다”. 그것은 김정희의 호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대부분 그 유명한 ‘추사체’ 글씨 덕분에 김정희 호가 추사인 줄만 알고 있다. 김정희는 24세 되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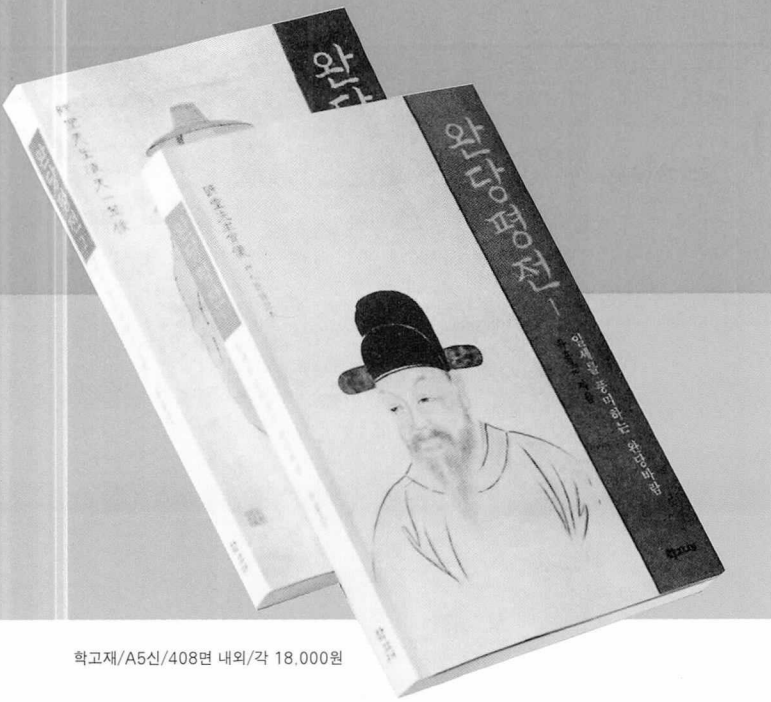
해 연경에 가서 대학자 완원을 만나 스승으로 모시면서 완원이 내려준 완당(阮堂)이라는 호를 청년 시절 이후 즐겨 사용했고, 그때그때 여러 가지 호를 지어 사용했다. 유교수가 《완당평전》을 쓰게 된 것도 “추사를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아는 사람도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임진왜란 전으로는 퇴계, 율곡, 송강을 알아야 하고 임진왜란 후로는 연암, 다산, 완당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산들을 넘기 전에는 이 나라 지성사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완당이 글씨뿐 아니라 고증학과 금석학, 경학에서도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유교수가 이 당대 최고의 석학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20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한국미술사를 전공하면서 우리나라 예술가들의 일대기를 엮어보겠다고 마음먹은 뒤부터다. 그러나 그때 그의 구상은 평전이 아니라 조선시대 화가 가운데 한명으로 김정희의 삶과 예술을 조명해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완당을 연구하면서 완당의 예술을 말하려면 그의 학문은 물론 청나라 학계의 수용이라는 국제적 시각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완당이 《화인열전》(역사비평사)의 여느 화가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가 마흔이라는 늦은 나이에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한 것도 완당의 학문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였다. 5년 동안 완당의 학문과 예술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청나라 고증학과 경학의 분위기, 그것이 조선의 실학에 끼친 영향 관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완당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쓸 수 없다는 생각만 굳어졌다. 그 대신 《완당 평전》을 써보겠다고 결심했다.

교유관계 통해 완당의 총체적 면모 드러내

《완당 평전》은 1권 《일세를 풍미하는 완당 바람》, 2권 《산은 높고 바다는 깊네》로 이뤄져 있는데, 김정희의 일생을 신동 김정희, 연경학계와의 교류, 학예와 연찬 과정, 출세와 가화, 완당바람, 제주도 유배시절, 강상 시절, 북청 유배시절 등 모두 10개의 장으로 나눠 서술하고



학교재/A5신/408면 내외/각 18,000원

있다.

완당 김정희는 당시 세도가였던 경주 김씨 일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글씨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으며, 당대 실학의 대가였던 박제가의 제자가 되면서 실학의 세계에 눈떴다. 그 뒤 24세 되던 해 아버지를 따라 연경에 가고 그곳에서 60일 동안 머물면서 청나라 최고 학자인 옹강방, 완원 등 많은 학자들과 교류한다.

유교수는 이 대목에서 단지 완당이 청나라 학계와 교류한 것뿐 아니라 김정희 이전의 한중문화교류사도 상세히 소개한다. 거기에 김정희가 교류한 사람들의 간략한 소개도 빼놓지 않는데, 그 수많은 인물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삼국지》 안에 도열한 역사적 인물들을 보는 것 같다. 완당을 둘러싼 인물들은 ‘완당 바람’의 주역이 된 완당의 제자들을 비롯해 평전 전체에 걸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등장한다. “그야말로 인문학적 《삼국지》가 아니냐”고 유교수는 되묻는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평전 하나씩은 쓸 수 있을 만한 인물입니다.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언급한 것은 완당을 그 사람들과 맺은 관계 속에서 더 잘 살필 수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완당은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살펴야 그 진가가 제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완당이 연경에 간 것은 그의 학문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가 스승으로 모신 옹강방과 완원의 영향은 실로 지대했다. 옹강방은 금석학자이자 서예가며 경학의 대가로 연경학계의 원로였는데, 고서화·탁본·전적 수집에서도 당대 최고의 수집가였다. 완당은 옹강방의 석묵서루(石墨書樓)에 마음껏 드나들었을 뿐 아니라, 옹강방과 완원 모두와 필담을 나누며 배움을 얻기도 했다. 이들과의 교류는 완당이 조선에 돌아와서도 계속됐다.

연경 시절의 경험으로 완당은 자신의 학문에 더욱 자부심을 품게 되는데, 그것은 때로 오만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완당은 “내가 석묵서루에서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 완당은 50대에 수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학문과 예술에서 국내는

물론 청나라에까지 이름을 떨쳐 일세를 풍미하는 완당 바람을 일으키게 되지만, 이런 오만한 성격은 훗날 시기심을 사 그의 가족이 화를 입고 자신이 유배당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은 완당의 세계

《완당 평전》에서 유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완당의 사상이 ‘입고출신’(入古出新)이라는 것이다. 입고출신은 고증학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다.

“추사체만 해도 그렇습니다. 청나라 정판교의 글씨는 개성은 있지만 너무 새로운 것이어서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했고, 등석여의 글씨는 너무 고전에만 집착해 새로운 것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를 극복해 입고출신을 이룬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옹강방이었는데, 완당은 이 옹강방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신만의 개성 있는 글씨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완당의 입고출신은 금석학 연구로도 이어져 최초로 진흥왕 순수비를 발견하는 쾌거를 이룬다. 그의 금석학과 고증학에 대한 지식은 이 책에 인용된 것만 봐도 실로 엄청나다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대한 지식을 이 책에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유교수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한다. 이런 유교수의 태도는 그의 학문의 여백처럼 보인다. 그 여백으로 후학들이 물려들기를 바라는 마음도 거기서 읽을 수 있다. 그가 완당의 시대로 들어가 완당을 현대적으로 되살려놓았듯 후학들도 그 여백에서 입고출신하기를 바라는 것일 게다.

그는 완당을 오르기 힘든 산에, 깊은 바다에 비유한다. 그는 “산송해심(山嵩海心)—산은 높고 바다는 깊네”라는 말로 이 책을 맺고 있다. 《완당 평전》에 들인 애정과 노력에 비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그는 말한다. 자료도 다 인용하지 못해 《완당 평전》 자료-해제편을 따로 펴낼 예정이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창작과비평사), 《화인열전》이 그랬듯이 그는 앞으로 이 책의 오류들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한다. 유교수는 아직도 《완당 평전》을 쓰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이 작업은 계속될 것이다. —김장근 기자

“죽어도 여한이 없을 책을 썼다”

학교재출판사에서 만난 유홍준 교수는 인터뷰와 새로 부임한 학교일 때문에 바쁘다고 불평을 늘어놓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20년 넘게 공을 들인 《완당 평전》이 드디어 독자와 만나게 됐으니 왜 안 그럴겠는가. 이 책 원고의 초고를 실학연구가인 정해림씨에게 맡겼는데, 다 읽어보고 나서 유교수에게 “죽어도 여한이 없을 책을 썼다”고 말했다며 자랑도 늘어놓는다. 《완당 평전》은 자료를 찾는 데만 10년, 집필하는 데만 4년이 걸렸다. 계간지 《역사비평》에 2년 동안 연재했던 원고지 1천7백매 가량의 원고를 거의 새로 쓰다시피 해 3천매 분량의 《완당 평전》을 완성했다. 사실이 책에 비하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노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고 그는 털어놓는다.

《역사비평》에 연재하면서 학계의 검증을 거쳤지만, 완당에 대해서는 워낙 각계의 고수들이 많아 두렵기도 하단다. 무엇보다 완당에게 어떻게 비칠지가 가장 걱정이다. 유교수는 책을 들고 곧 예산의 완당 묘소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완당의 묘소 앞에 선 그의 심사가 어떨지 자못 궁금하다.